



03

현대시 감상하기

생활 속 생각 열기

친구가 적어 준 시 구절이 감동적이어서 한참을 속으로 되뇌었어.
어떤 시인의 작품인지 궁금했지.
알아보니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래.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는 현재를 사는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마치 시인의 감정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았어.
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걸까?

●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자기 성찰의 내면을 그린 시를
감상하며 작품의 내용을 파악
한다.



토속성이 드러나는 시어를 살
펴보고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
적 가치를 이해한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을 감
상하며,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방식을 비교한
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백석

279쪽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촛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二龍背記)에 북덕불(北德佛)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찢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280쪽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죽손(二老)에 찔랑찔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섰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찔랑찔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어휘 풀이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남신의주(南新義州) 유동(柳洞)이라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朴時逢)이라는 사람의 집. '방(方)'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냄.
- **삿**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 **좌를 붙이다** 주인집에 세 들어 살다.
- **누긋하다**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하다.
- **딜웅배기** 질웅배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
- **북덕불** 짚이나 풀, 겨 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쌔김질** 새김질.
- **나춥손** 저녁 무렵.
- **어니** 어느.
- **바우 쉼** 바위 옆.
- **갈매나무** 갈매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5미터이며, 나무껍질은 연한 잿빛을 띤다.

내가 읽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가족도 없고, 자신의 집도 없는 상황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의 의미는 무엇 일까?

화자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자기 적 태도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에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 있을까?

무기력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며 곧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함. ⇒

적 태도

●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써 보기

백석(1912~1995)

시인. 아름다운 우리말 문장으로 향토적인 감수성을 표현하였고,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여우난골족>, <모닥불>, <여승> 등이 있다.

한 걸음 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인들은 과연 얼마나 이 고고한 시인에 육박할 수 있으며, 또 능가할 수 있었더라.”

- 《학풍》 1948년 10월 창간호

1

현대시 감상하기

- 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을 시상 전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 보자.

	중심 내용	화자의 정서
①	1~8행: 화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다.	쓸쓸함, 상실감
②		
③		
④		

- ②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외로움, 쓸쓸함

→

그러나

→

•내면의 안정

③ 갈매나무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 시적 화자에게 ‘갈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갈매나무의 모습	갈매나무의 의미

④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제목을 이처럼 정한 까닭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주는지 써 보자.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다. 즉, 제목은 화자가 거처하는 주소지이며 작품의 내용은 편지의 사연에 해당하여, 작품 전체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제목을 정한 까닭	
효과	

⑤ ④를 참고하여 작품의 제목을 정하고, 자신의 성찰이 담긴 시를 창작해 보자.

2

문학사의 흐름 이해하기

①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를 생각해 보자.

1930년대에 이어 1940년대는 일제의 수탈로 농촌의 현실은 피폐해져 갔다. 이러한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고향 상실감과 더불어 민족 해체의 반발 작용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1) 이 시에서 토속성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고, 작가가 이와 같은 시어를 쓴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토속성이 드러나는 시어



시어를 쓴 까닭

(2)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창작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모둠 활동

② 다음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과 유사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모둠별로 작품을 하나씩 선택하여 감상하고, 시적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해 보자.

•이상, 〈거울〉

•윤동주, 〈쉽게 찢어진 시〉

•김광균, 〈추일 서정〉

•이육사, 〈광야〉

소단원 마무리

소단원
정리하기

● 1940년대의 문학

1940년대 문학

이 시기 작가들은 민족이 당면한 시대 상황과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문학적 노력을 기울였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의 문학사적 가치

- 암담한 시대 상황과 가난한 현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지식인의 내면 의식과 굳은 삶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강조한다.

어휘
점검하기

● 다음 글자들을 조합하여 아래에 제시된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완성해 보자.

나 질 북 손 배 웅 좇 볼 기 덕

(1)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	→				
(2)	짚이나 풀, 겨 등이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3)	저녁 무렵.	→				